

코로나19 극복 온정의 손길



우리금융, 대구 의료진에 '든든한 도시락' 지원
우리금융그룹이 대구 지역거점병원의 의료진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2억원을 전달해 '든든한 도시락'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오렌지라이프, 대구·경북 의료진 등 위해 1억

오렌지라이프는 대구·경북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억원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신한금융그룹과 와디즈가 함께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모금하는 '호프 투게더 위드 신한(Hope Together with 신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ORANGLIFE
회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분투 중인 의료진과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필요물품을 제작해 전달할 예정이다.

메인베즈協, 대구·경북 회원사에 마스크

박용주 명예회장 1000장 등 2.1만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베즈협)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협회 회원사들을 위해 마스크 2만1000장을 긴급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한 1만장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으로 회원사들의 기부가 이어지면서 성금이 초과 달성됐다.

LG생건, 화장품가맹점 이달 월세 50% 지원

네이처컬렉션 등 500여 곳
LG생활건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사업이 위축되어 월세지급의 부담을 느끼는 화장품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기 위해 3월 월세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LG생활건강 네이처컬렉션 매장 전경
인한 소비자들의 외출 감소로 매출의 위축을 겪어오고 있다.

LF, 의료진에 5억 상당 기능성 티셔츠 1만장

LF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재난 구호를 위해 고생하는 대구 의사회 및 경북 의사회 소속 의료진에 기능성 티셔츠 1만장을 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LF는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서 구호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지역 사회의 안전과 방역을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 씻을 갈아입어야 하는 개인 의류의 세탁 등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 부닥쳐있음을 고려해 5억 원 상당의 기능성 티셔츠 1만 장을 기부하기로 했다.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홈코노미(Home+Economy)', '집콕'족이 증가하면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 체중증가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수록 음식 섭취량은 늘 수밖에 없는데, 식사량이 평소와 똑같더라도 활동량이 적어 소화 가 잘 안 되고, 밤늦게 야식 먹는 습관이 생겨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다이어트와 한약

하지만 봄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년의 건강이 결정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습관, 그리고 체계적인 체중 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때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 몸이 자주 붓는 경우, 평소 식사량보다 살이 잘 찌는 경우라면 한방 다이어트를 통해 체질을 개선해줄 수 있다.

'다이어트 한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간에 부담을 준다'는 속설도 있는데, 대부분의 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사례는 주로 허가받지 않은 약초를 사용하거나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전문의의 처방 없이 민간요법으로 무

분별하게 복용한 경우 발생하는 것이 대다수다.

본원에서 시행 중인 한방 다이어트는 습담 제거 효능과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백축, 복령, 의이인(울무썬) 등을 이용해 비만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전통적인 탕약 외에도 휴대와 복용이 더욱 간편한 한제, 농축연조엑스제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됐다.

또 최근에는 한방 치료 전후로 다양한 검사를 통해 그 효능이 수치로 입증되기 때문에 안전을 신뢰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셀프 디톡스 프로그램도 있으니 바깥 외출이 꺼려지거나 병원 내원이 어려운 경우라면 셀프 디톡스를 시행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장 속에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게 되면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은 물론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니 전문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장 해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암규정 대자연한의원 원장

현대백그룹 '사회공헌 모델', UN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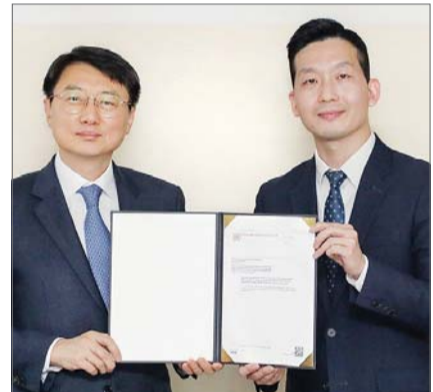
여성지위위원회 공식의견서 채택
여성·아동 자립지원 등 높이 평가

현대백화점그룹의 사회공헌사업이 유엔(UN)의 공식 의견서로 채택됐다.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노력이 전세계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UN지원SDGs협회'에 제출한 자사의 여성 및 아동 사회공헌 모델이 지난 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제64회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서 '공식 의견서(Written Statement)'로 채택됐다고 10일 밝혔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기능 위원회 중 하나로, 매년 세계 각국 대표와 관련 기구들의 모여 여성 권한 강화와 권의 증진을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국제기구다.

공식 의견서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회원국(54개국)이 모인 전체 회의에서 합의된 결과를 명문화한 유엔의 공식



장호진 현대백화점 사장(사진 왼쪽)과 김정훈 UN지원SDGs협회 사무대표가 UN 여성 지위 위원회에서 채택한 '공식 의견서' 전달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입장으로, 채택된 의견서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의장의 명의로 54개 회원국에 배포 및 권고된다.

유엔 산하의 위원회로부터 공식 의견서로 채택된 건 국내 기업 중 현대백화점그룹이 두 번째이며, 국내 유통기업 중에는 최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저소득 여성과 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양질의 교육

을 통한 사회적 권리 신장과 일하는 여성의 보육 환경 개선 등에 앞장서고 있는 점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가 높이 평가해 공식 의견서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공식 의견서에는 현대홈쇼핑이 업계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여성 생애주기별 지원 프로그램인 '하이(H!) 캠페인'을 비롯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 개소와 청각장애아동 수술비 지원, 그리고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운영을 통한 창의적 아동 교육 활성화 등 현대백화점그룹의 다양한 여성·아동 사회공헌사업이 소개됐다.

특히, 이번 현대백화점그룹 사회공헌 모델이 유엔의 '공식 의견서'로 채택됨에 따라, 유엔이 지난 2015년 수립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2016년~2030년 추진)'를 달성하는데 있어서도 일정 부분 기여할 전망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인사

- ◆청주시 ▷5급 전보 ▷상당구 영운동장 권오의 ▷충덕구 강내면장 정영수 ▷5급 승진 내정 ▷청원구 우암동장(직무대리) 유현숙 ▷6급 전보 ▷서원구 유진희 ▷충덕구 최윤서 ▷6급 승진 내정 ▷공보관 이병선

배포도우미 모집
강남, 서초지역 근무
010-5241-6694

- △공보관 이수정 ▷자치행정과 서종근 ▷북지정책과 홍주현 ▷문화예술과 김철호 ▷문화예술과 류대선 ▷도시계획과 김은애 ▷공원관리과 이소영 ▷정보통신과 천승희 ▷교통정책과 박을수 ▷문화예술과 양주희

- ◆방위사업청 ▷과장급 전보 ▷기술혁신과 장 강준호 ▷표준기획과장 도윤희 ▷과학화체계사업팀장 김태숙 ▷연구개발총괄팀장 김상호

- ◆조선일보 ▷AD영업3팀장 이종태 ▷디지털광고팀장 김한기

- ◆메가경제신문 ▷대표이사 겸 편집국장 류수근 ▷부대표 겸 사업본부장 김재목 ▷

- 경제산업국장 정창규
◆한국정책신문 ▷생활경제부장 허우영

부음

- ▲이종희씨 별세, 박건찬(경북지방경찰청장)씨 장모상 = 10일 오전 7시, 대전 대청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2일 042-587-4442

- ▲박정래씨 별세, 이광복(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씨 모친상 = 9일 오후 8시 10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12일 오전 11시, 042-600-6660